

缺瀨虎枉^수을 끌고 왔다. 산강에 바위를 깎아 만든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그의 모습은 절경 같았다. 그는 배에서 내려와 강변에 앉아 희미한 불빛 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셨다. 그의 목소리는 청脆(청脆)하고 목소리가 깊어 푸른 물 속에 반사되는 듯 했다. 그의 노래는 그의 삶과 그의 정신을 잘 표현하는 듯 했다.

